

5·18 광주 10일간의 생생한 자필 기록 첫 공개

당시 수배중이던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광주일보에

80년 6월 서울 은신처서 작성...최초 발표 19일 계림동 앞 적시
계엄군 만행·항쟁 미흡한 점 등 원고지 140장 분량 역사적 가치

5·18 38주년

보야라 오일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5·18 민주화운동 10일간의 생생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원고지 140장 분량)이 처음 공개됐다.

5·18 당시 수배 중이었던 박석무(76·당시 대동고등학교 교사)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5·18항쟁 직후 작성한 이 기록물은, 처음부터 5·18을 의거(義舉)로 규정짓고 계엄군의 만행과 항쟁의 미흡한 점 등을 상세히 담아내 5월 기록물도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박 이사장이 광주일보에 첫 공개한 '5·18 광주의거-시민투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은 각 일차별 항쟁 상황과 발생 원

인·의의, 교훈 등을 8개 장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은 1980년 6월 14~15일 박 이사장이 서울 은신처에서 원고지 뒷면에 자필로 작성했다.

박 이사장은 "당시 신군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죽기 전 광주의 진실을 밝혀두고자 비장한 각오로 썼다"고 작성배경을 설명했다.

1장 머리말에서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 '광주사태' 또는 '폭동'으로 표현된 5·18을 반민주·반민족·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항한 장엄한 의거로 표현하고 있다.

2장 '광주라는 곳'은 삼국시대 황산벌 싸움, 동학 혁명, 한말 의병투쟁,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등을 통해 매년 패배를 겪었지만 의로운 투쟁을 이

무슨 내용 담겼나

**'환각제 소주' 공수부대 투입
전봇대 묶어 무자비한 구타
시체 확인 못하게 페인트 칠하고
軍, 소극진압 경찰에 위협사격도**

어간 전라도를 설명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또 3장 '광주의거의 직접적인 원인', 4장 '광주의거의 발단' 등을 통해 학원자율화운동이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져 1980년 5월 14~16일 민족민주화대성회가 열린 점까지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광주시민들이 대성회를 끝내고, 자발적으로 해산한 뒤 정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린 점은 오판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0만 인파가 몰렸던 대성회가 17일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5·18 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당시 그의 생각이었다.

5장 '광주의거의 경위'에는 계엄군의 진압과정도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그는 특히 5월18일 계엄사측이 공수부대원들에게 환각제를 섞인 소주를 먹인 뒤 광주 시내에 투입시켜 학생 실육작전에 돌입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써냈다.

공수부대원들이 대학생들을 잡아 옷을 벗기고 전봇대에 묶어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 계엄군을 피해 고층건물에서 뛰어 내린 대학생이 즉사한 사건들도 서술돼 있다.

그는 지난 2007년에서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최초 발표 시점도 5월19일 계림동 앞이라고 명확하게 적시해 냈다.

박 이사장의 글에는 당시 계엄군이 경찰의 소극적 시위 진압에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도 나온다. 계엄군이 경찰이 시민들의 시위를 막는 시늉만 한데 격변해 경찰

고위간부 등을 집단 폭행하고, 경찰을 향해 위협사격 등을 했다는 것이다.

6장 '해방된 광주'에서는 22~26일 평화적인 광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수습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자발적 치안 유지, 거리 청소가 이어졌으며 경찰서 등 관공서도 시민군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켜졌다는 내용이다.

7장 '광주항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8장 '광주의거의 교훈'에서는 고정간첩,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한, 당시 후환이 두려워 몸을 사렸던 일부 학생운동지도부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 이사장은 "애초 이 기록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면 지난 1995년에 공개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의도라도 여겨질 수 있다는 고민에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있었다"며 "오는 9월 출범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28일 재판 출석 여부는 미지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 첫 재판이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예정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아직 법정출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재판이 열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첫 공판일이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으로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정형으로 볼 때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게 돼 있고, 공정성을 위해 전산 배당으로 무작위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합의부 배당 조건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법정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며, 아직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동영상' 촬영자 누구? 기무사 사진 등장인물 주목

광주일보 사진 단독 입수

"동일인 아니냐" 의견도

지난 8일 공개된 '5·18 미공개 영상'〈광주일보 2018년 5월 9·10일자 1·3면〉과 관련해 영상을 찍은 의문의 촬영자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보안사 후신)의 사진이 공개됐다.

광주일보가 13일 입수한 기무사 사진에는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금남로를 바라보며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이 포착돼 있다. 양복차림인 그는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도청을 장악한 날, 무장군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지만 영상을 촬영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당시 전남도청 공보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기자나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장비는 16mm 영화제작 카메라로 보인다. (대한뉴스 등을 제작한) 문공부 산하 국립영화제작소 직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5·18 미공개 영상'의 촬영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광주항쟁 유혈진압 이후 38년 동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담은 영상 원본 존재 가능성 때문이다. 72분짜리 무성 흑백 영상에는 집단발포 직전의 일촉즉발 순간, 주먹밥을 나누는

시민, 시신이 보관 중인 병원 영안소, 유혈진압 이후 도심을 정리하는 시민, 밝게 웃으며 등교하는 초등생 등 1980년 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광주 모습이 담겼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지난 3월 익명의 수집가에게 사들인 영상에는 광주항쟁 유혈진압에 앞장선 소준열 전남북계엄분소장 겸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박준병 제 20사단장이 옷거나 자신에 찬 표정으로 나오기도 한다. 영상은 그러나 집단발포 순간, 헬기사격, 시민학살 내지 구타 장면 등 군의 잔혹한 모습은 담겨있지 않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영상 공개 이후 원본 존재 가능성과 함께 촬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가 13일 독자로부터 입수한 국군기무사령부(보안사 후신) 사진. 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 후 계엄군의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 인물(점선안)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5·18기록관 소장 희귀 기록물 원본 14~25일 공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소장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물 등 희귀 기록물 원본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3일 "5·18 38주년을 맞아 14일부터 25일까지 5중 수장고 열람실을 개방하고 기록물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외신기자로 광주를 취재해 전 세계에 알린 독일 힌츠펠터 기자의 여권과 안경, 5·18 당시 광주여고 학생으로 민주항쟁을 보고 느낀 점을 담은 주소연 학생의 일기장, 동아일보 광주 주재 김영택 기자의 취재수첩,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원

본과 등을 볼 수 있다.

기록관의 5중 수장고는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문서, 필름, 사진, 시청각 자료 등 3만4143점을 보존하고 있다.

한편 1982년 4월 황석영씨 집에 모여 녹음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담긴 테이프 2개가 광주시에 기증됐다.

당시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을 기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의지를 결집하

기 위해 황석영, 김종률, 전용호씨가 제작한 장작노래극 '뉘폴이'를 녹음한 테이프 2개, 녹음을 담당한 이훈우씨가 최근 집에서 테이프를 발견해 5·18기록관에 기증했다.

5·18기록관은 기증받은 테이프를 전문 기관에 맡겨 보존처리와 디지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경 성희롱·불륜 경찰 해임 적법"

○...법원이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을 성희롱하고, 또 다른 여경과는 불건전한 관계까지 맺은 파출소장의 해임징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

○...13일 광주지법 행정1부(하원국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남의 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경감은 2016년 7월 파출소 여경 A(29)씨에게 "예쁘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파출소의 다른 여경(26)과 불건전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들어나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을 당했으며, 이에 불복해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소송도 기각했다는 것.

○...이 경감은 당시 검찰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조사 자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판사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도 실추됐다"며 "특히 근무 중임에도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